

정후식칼럼



논설실장·이사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정치권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독려할 때 내미는 단골 구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슬로건도 빠지지 않는다. 선거와 투표가 지닌 가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을 대표해 나라일을 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가 우리 사회와 정치를 얼마만큼이나 나아지게 만들었는지 반추해 보면 회의감부터 든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을 양극단으로 몰아가며 분열을 획책하고,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은 커져만 간다. 타협과 공존이나 다양성은 사라지고 대결과 배제가 판을 친다. 기독교의 아성은 갈수록 견고해져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된 지 오래다. 대의 정치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치의 퇴행은 2016년 4·13 총선거로 출범한 20대 국회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등으로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가 형성됐다. 유권자들이 집

총선 투표소 가는 길에

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하며 정치권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겉으로는 상상과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무한 정쟁으로 슬한 날을 지새웠다. 그래도 개인 직후엔 변화의 사능이라고 했다.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발전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면책 특권과 세비 삭감, 선거 공천 방식 등 다양한 개혁 이슈가 논의됐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자정 역할을 해야 할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식구 감싸기’도 여전했다. 5·18 망언, 부동산 투기 의혹, 성희롱 발언 등으로 47건의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구태 반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입법 활동도 뒷전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 4003건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법안은 8574건으로 35%에 불과했다. 최악으로 평가받던 19대 국회의 42%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이행 완료율도 50%를 넘지 못했다. 본업을 내팽개친 ‘일하지 않는 국회’의 전경이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 법안의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국회는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어 버렸다. 거기아 ‘죽어 사태’로 인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여의도 정치는 실종됐고 시민들은 ‘거리 정치’로 내몰렸다.

이런 정치 현실에 그나마 일부 의원을

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돼 버렸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는 물론 국민까지 모두 패자로 만들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분출하는 자성의 목소리에도 여야 정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구태와 악습을 반복했다. 당선 지상주의에 정당 간 이합집산이 판을 쳤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 보장과 사표(死票) 방지를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비례용 꼭두각시 정당을 내세우는 반칙과 꼼수를 거듭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후보 공천 역시 달라진 게 없었다. 여야는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을 약속했지만 원칙을 무시한 채 룰(규칙)을 반복했다. 후보를 제멋대로 바꾸는 뒤집기 공천이 난무했다. 현역 의원 몰락기와 청년·여성의 참여 확대도 빈말에 그쳤다. 상대편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비전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결국 국회와 정당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망각한 채 정치 불신과 탈정치를 부추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이다. 그 출발은 선거다. 국정 농단 사태 속에서 퇴행을 거듭한 20대 국회가 그나마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은 성과로 꼽힌다. 여기에는 촛불 민심과 지난 총선 당시 유권자들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의 국지 지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개혁을 뒷받

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선거권이 만 18세로 확대된 것도 그 덕분이었다.

다시 선택의 날이 밝았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과 재난기본소득 등 민생 구제 대책, 경제 위기 극복, 정치 개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선거이다. 다행히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깜깜이 선거’ 속에서 여전히 짝을 못한 후보가 없다는 유권자들도 많다.

방관은 정치의 타락 부른다

그렇다면 투표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실망스럽다고 투표를 외면한다면 끝내 나쁜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의 타락은 방관에서 시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선거는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 정치의 현실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느껴질지라도 투표소에 가기 전 선거 공보물에 담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와 공약을 꼼꼼히 살펴 최선이 없을 땐 차선을, 그것마저 없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호남 정치의 새로운 미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인물을 골라내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권력을 위임했던 유권자가 나서서 수밖에 없다. 투표 참여와 지속적인 감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등 개혁 의지를 압박해야 한다. 그것은 막장·구태·악습의 악성 정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것이다.

은펜칼럼

21대 국회의원 선거



박행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총 300명의 의원들을 뽑는다.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직을 권력, 명예, 부의 3중 세트가 따라오는 최고의 자리라고 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때 보다 더 치열한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승자와 패자가 판가름나는 총성 없는 전쟁, 가히 선거전이다.

이번 선거에 나타나는 몇 가지 색다른 특징들이 있다. 첫째, 위성 정당을 비롯

한 정당의 난립이다. 지난 20대 선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7개이다. 정당 이름에는 민중, 민생, 민주, 자유 등의 단어를 외에 배당금, 미래, 자영업자 등이 눈길을 끈다. 노골적으로 지역색을 띤 정당도 있다.

두 번째는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한 살 낮춰졌다. 하향 조정으로 생겨난 유권자수는 54만 8986명으로 전체의 1.2%에 해당한다. 10대 유권자가 2.6%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투표 참여율은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코로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이다. 55개국의 91개 공관에서 8만 7269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재외 유권자의 50.7%에 해당 하는 숫자다. 이는 국경 폐쇄, 단체 활동 금지, 이동 제한 등 주재국의 결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내 대거 방식은 우리 정부의 소관이다. 의사협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 국경 폐쇄를 수차례 요청

했으나 목살한 것에 대한 비난이 있다. 그러나 확진자 파악 및 역학 조사, 투명성, 드라이브 스루 등은 높이 평가된다.

네 번째 특징은 심한 분열이다. 상당수의 종교인들이 반정부 시위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같은 종교인들 중에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을 비난한다. 국민들도 양단으로 나뉜다.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을 ‘3대 폭랑’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묻는 쪽과 뭐든지 다 잘 한다고 칭찬 일색,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한다는 쪽으로 민심이 갈린다.

마지막으로 대화 부재이다. 요즘 유행하는 소통 형태인 단체 대화방에 한 쪽의 의견이 올라오면 다른 쪽에서는 자기 의사를 개진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퇴장, 또는 삭제 요구가 빗발친다. 가족 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소통은 없고 별력 화를 내는 버럭증만 표출된다. 좋은 정치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한다. 좋은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타고난 정치인의 품성, 그의 역량과 사상뿐 아니라 이를 알아보는 유권자의 합작으로 이루어진다. 선거는 후보 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유권자가 적임자를 가려내는 것이어야 한다.

프랑스의 정치경제학 분야에 탁월한 저서들을 남긴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 1801~1850)는 정치를 리모컨 쟁탈전에 비유한다. 또 국회의원이란 한 쪽 시민을 위해 다른 쪽 시민을 희생시키는 존재라고도 하니 정신이 번쩍 든다.

1970년에 발표한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 다섯 종류의 도적에 국회의원은 두 번째로 꼽힌다. 어차피 도덕군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리 없으므로 정치권들의 소소한 도덕질은 눈감아 주리라. 다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를 살리며 안보를 책임져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향한다.

기고

내 생의 마지막 선거



김명환 전남도 교육위 부의장

내 나이 어느 새 칠순을 바라본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뒤편 삶이 왔다. 상도 바라지 않지만 발도 주지 말라고 기도 한다. 동갑내기 중에는 진즉 유명을 달린 이가 적지 않다. 강대국의 자부심을 강그리 몽개 버리고 있는 코로나 속에 서도 잘 견디고 있으니 천우신조가 아니면 오늘의 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 돌아보니 파고 만장한 그 세월을 용케도 잘

살아 냈구나 싶어 누군가에게 고맙기가 짝이 없고, 멀어져 가는 커브길 철길마냥 아득하기가 그지없다. 다시 가라하면 못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오늘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나 자신은 전남도 교육위원 선거에 도전해 전국 최초로 다섯 번이나 당선되기도 했고, 교육감 선거에도 나가 떨어져도 봤다. 사반세기 동안 내 자신을 선거에 올려놓았고, 자천 타천으로 여러 가지 선거에 관여하기도 했기에 이번 선거에 대한 상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는 해와 함께 나이를 더하니 선거와 관련해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된다.

돌아보니 난 단 한 번도 나 자신이 아닌 대의를 위해 투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다. 교육위원 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내가 당선되어야 하니 말 할 것도 없었고, 다른 선거 역시 나와 인연이 있거나 여러 가지 명목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을 위해 투표를 한 것 같다. 순전히 나와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사람이냐 당에 투표를 하고 만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평했다. 시곗바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투표를 해 본 적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만은 내 남은 생에 있어서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할 계획이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투표를 하고 싶다. 진정 누구를 찍어야, 진정 무슨 당에 힘을 실어줘야 나라가 변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투표를 할 계획이다. 설사 내 투표가 계란으로 바위

를 치는 격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의식하지 않고 투표를 하겠다.

씨알의 소리로 잘 알려진 함석헌 씨는 “선거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덜 나쁜 이를 뽑는 행위”라며 작금의 선거에 대해 냉소를 한 바가 있다. 내 지난날의 선거 모습이 그리했기에 그런 말을 말할 수도 없다.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꽃밭이 되겠느냐고 말하지 않겠다. 나부터 꽃 피우면 당신도 따라 꽃 피울 것이니 머지 않아 풀밭이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겠다.

용케도 잘 살아남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 나대신 힘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번 선거, 내 생의 마지막 남은 선거라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직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겠다.

社說

오늘 투표일...차선도 없다면 차악이라도

오늘은 21대 총선 투표일이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인해 당초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역구 모두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가 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들은 역량에서 믿음이 가지 않고 민생당 현역 의원들은 식상하다”는 유권자들도 많다. 이들 또한 투표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찍을 후보가 없다’는 논리는 소중환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유권자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최악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그 차선도 보이지 않으면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코로나 피해 자동차산업 위기 특단의 대책을

코로나19 사태로 광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또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기아차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산으로 수출 주문이 격감하자 노조 측과 일부 생산라인 휴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 대상은 광주2공장과 경기 광명 소하리 1·2공장으로, 휴업이 결정되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기아차 광주2공장은 스포티지와 쏘울 등 미국과 유럽 수출용 차종을 하루 900여 대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말을 제외하고 닷새간 휴업하면 약 4500여 대의 감산 피해를 예상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월에도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1·2·3공장의 가동을 중단해 광주의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8.2%나 감소한 바 있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업계의 판매 부진과 함께 완성차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등을 보면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모두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가 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들은 역량에서 믿음이 가지 않고 민생당 현역 의원들은 식상하다”는 유권자들도 많다. 이들 또한 투표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찍을 후보가 없다’는 논리는 소중환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유권자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최악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그 차선도 보이지 않으면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투표를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소에 가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임을 명심하고 소중환 한 표를 행사하자.

금호타이어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등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차 휴무에 이어 이달 30일부터 5월 초까지 추가 휴업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협의 중이다.

이 같은 기아차와 금호타이어의 잇단 휴업은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광주공장만 해도 광주시 총 생산액의 32%, 총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 감소는 부품을 납품하는 지역 1차 협력업체 50여 곳을 포함해 이들과 거래하는 수백 개의 2·3·4차 협력업체들의 매출 타격과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지역경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한다. 정부와 광주시는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코로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융·세계 지원 등 수출 및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전체 의석수는 광주·전남 18석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의원 47석 등 모두 300석이다. 그러나 오늘 300명의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다. 이들은 다음달 30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제21대 국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28%와 44%의 ‘현역 의원 몰락기’에 나서면서 정치 초년생들 도 상당수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제21대 국회는 구태와 악습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와 달리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제20대 국회는 사실상 ‘최악의 국회’였다. 임기 초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중대사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무력 충돌까지 벌이면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특히 거대 양당은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반복되는 국회 보이콧, 늘어가는 ‘잡자는 법안’들로 국회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안은 없고 전영 싸움에 빠져 반대단을 위한 반대 정치, 억지 정치가 판을 친 국회였다.

이제 오늘 투표로 막을 내리는 21대 총선의 선거 과정에도 사실 감동은 없었다. 광주·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잡음으로 온 동네가 시끄러웠고, 일부 선거구는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비방전으로 선거 막판까지 못 볼 꼴을 보였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된 가운데 후보자들은 정책 및 비전 제시보다는 오로지 국회 입성을 위해 서로 물고 뜯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도 과거 국회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제 오늘로 선거는 끝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1대 국회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는 각종 법안 처리 등을 통해 민생을 돌보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무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